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본격화

정부, 2013년부터 5년간 213억원 지원 ... 유통비 줄이고 안전 향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주거지에서 액화석유가스(LPG) 보급 사업이 2013년부터 본격화한다.

대한LPG협회는 12월1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3톤 미만의 LPG 소형 저장탱크를 주택지에 설치해 인근 가정에 LPG를 집단 공급하는 사업으로, 1-2톤 규모면 70여가구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용기배달 방식에 비해 유통비용이 절반 가까이 줄고, 안전성은 5배 가량 향상될 것으로 대한LPG협회는 예상했다.

주민들도 연료가 떨어지면 일일이 배달 주문을 해야 했던 불편에서 벗어나 1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방식이 전체 공급량의 60% 이상으로 보편화돼 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 차원에서 2013년부터 5년간 총 21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탄력이 붙었다.

정부와 관련기업들은 우선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일반 주택으로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LPG 시장은 E1과 SK가스가 기부한 기금으로 2012년 9월부터 강원도 춘천과 경상북도 청송의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여 공급가격 절감 등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국내 가정·상업용 LPG 사용량은 정부 주도의 도시가스 확대 정책으로 2002년 이후 줄곧 감소해왔으나 사업을 계기로 LPG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대한LPG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홍준석 LPG협회장은 “소형 저장탱크 보급으로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LPG가 서민연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13>